

노력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옵니다



차재승

- (서울)성보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법대 졸업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4회(2015년도) 변호사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이치스 소속변호사

I. 머리말

글을 쓰기 전, 제가 과연 합격수기를 쓸 만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제도의 수혜자로서, 저처럼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후배님들이 많아지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제도가 보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시작합니다.

합격수기인 만큼 수험에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II. 학교생활

1. 기본법 중심의 시간표

변호사시험을 위해 수업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또한 1학년 커리큘럼은 기본3법과 후사법 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1학기에 민법총칙, 채권각론, 형법총론, 헌법(1), 2학기에 물권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 등, 변호사 시험과목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 외의 시간들에 제가 평소 관심이 있던 과목들을 배치해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할 때 변호사시험 적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민법과목이 변호사시험에 적합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학점이나 담당교수님의 성

항 등 부차적인 문제들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 그 과목을 수강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교수님과 공합이 잘 맞아 해당과목에 대한 이해가 쉽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모든 수업이 그럴 수 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와 맞지 않는 수업일지라도 커리큘럼에 따라 순차적으로 준비해 나가다 보면 분명 득이 실보다 많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로스쿨 기간 동안 유독 학점이 잘 나오지 않는 교수님의 수업이 있었지만, 변호사시험에 도움이 되리란 판단 하에 학점과 상관없이 수강을 결정했고, 그 판단은 결과적으로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점이 필요한 로스쿨생은 극소수인 점(예컨대 공직을 희망하는 원우 등)을 고려할 때, 학점보다는 변호사시험에 중점을 두고 결정하시는 편이 현명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훗날 학점이 나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도 변호사사가 된다는 전제 하에 서 논의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 이유들로 인해 해당과목을 수강하는 대신 지습을 선택한 원우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다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의 질은 시험 바로 직전 긴장된 상태에서 볼 때가 가장 높아지는데, 혼자 공부하는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학기가 끝나고 나면 수업을 통해 해당 과목을 이수한 원우와 그렇지 않은 원우의 이해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 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성취도

저는 공부는 결국 내가 하는 것이고 학교는 나에게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 준다라는 생각으로 학교생활에 임했습니다. 사실 수업이라는 것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명강의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복습 없이는 온전한 제 지식으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다년간의 수험생활을 통해 이미 경험한 바 있었기에, 저는 수험기간 내내 예습, 복습 등 수업준비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을 최대한 활용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교수님들은 이미 최고의 실력을 검증받으신 분들이며 누구보다도 원우들의 합격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기에, 수업 내용 중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들에 최선을 다해 응해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들어야 할 수업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변호사시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3. 나만의 기본서를 만들어라

각 과목별로 기본서를 하나씩 정하십시오. 저는 과목별로 선택한 기본서들을 필요한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을 추려내어 단권화 하였고, 수험기간 내내 그것들을 꾸준히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다소 마이너 하더라도 제가 보기 편한 기본서를 선택했는데 다행히 수험 막판까지 이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험 막판에 마이너한 기본서 선택이 불안요소로 작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해 선택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요컨대 자

신에게 잘 맞는 수험서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혹시라도 수험 막판 불안감이 걱정되신다면 주위에서 많이 보는 기본서를 선택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저는 얇은 기본서를 선호하여 민법은 김준호 <2>학년 1학기 민법의 맥(윤동환)변경, 형법 신호진 요론+이용배 판례집, 헌법 정희철 작은헌법+정희철 판례200, 민사소송법 이창한 핵심정리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신강(송옥렬)로 정하고 반복하였으나 형사소송법, 행정법은 3학년이 돼서야 로만형소(이재철), 행정법 엑기스(정성균)+행정법연습(홍정선)으로 정하고 반복하였습니다.

사실 기본서라는 것이 당락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2008년 판 교재로 수험을 준비하면서 이후 추가되는 판례는 수업시간 등을 통해 보충하여 각 기본서에 단권화 시켰는데 시험에서 무난한 점수를 얻었습니다(확인 할 수 있는 것이 객관식 점수뿐이라 사례와 기록은 잘 모르겠지만 객관식은 114개 이상을 맞았습니다). 기본서 고민은 오래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익숙한 것으로 반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수험방법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Ⅲ. 수험 준비과정

1. 사례와 기록 준비과정

사례와 기록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업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수업을 대하는 인식을 “수업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한다”가 아니라 “수업은 내가 수험공부를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어떤 수업이든 얻을 것이 있다. 어차피 소비되는 시간이라면 유의미한 시간으로 남기자.”라는 생각으로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과제가 있는 경우 다른 원우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답이 맞든 틀리든 최대한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그 중 각종 연습수업은 사례형을 준비하기에 최적의 수단이라 생각되어 특히 충실히 임했습니다. 스터디 등 자율학습으로 60분 40문제 객관식문제 풀이 연습은 가능했지만 수시로 나오는 과제와 수업준비 등으로 2시간 이상 사례형 문제를 꾸준히 푸는 것은 제 역량 밖의 일이었습니다. 꾸준히 사례를 풀기위해 스터디도 해보았지만 수업시간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성과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간혹 수업이 수험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규칙적으로 사례형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을 위해 예습 복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험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례형 기록형 답안지를 교수님께서 첨삭해주셔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우수 답안지와 제 답안지를 비교하며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상위 10%를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험전략상 잘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방법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위 20%가 되는 것보다 하위 20%를 벗어나는 것이 쉬운 것처럼....

2. 객관식 준비과정

수업으로 사례와 기록작성 연습을 한 것과 별개로 객관식 스터디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퀴즈로 기출문제 객관식을 풀었지만 보다 실전에 적합하게 60분 40문제 연습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한달을 남기고 반복하여 객관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푼 것이 저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시험 1달을 남기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니 객관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1차 졸업시험에서 98개였던 객관식 개수가 2차 96개, 3차 92개로 하락하다보니 객관식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반성에 객관식을 중심으로 남은 수험기간(1달)을 정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객관식은 지금까지 준비 하던 방식(시간을 정하고 푸는 방법)으로 스터디를 모집하였고, 스터디 인원이 너무 방대해지면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 있어 목표인원은 5인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식을 풀다가 자주 틀리는 부분은 기본서를 통해 보충하였기 때문에 사례에 대한 대비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차 9시~10시 공법 3회번시, 14시~15시 2회번시, 19시~20시 1회번시

2일차 9시~10시 공법 (2014-3차 법전협모의고사), 14~15시 2014-2차, 19시~20시 2014-3차 등의 순으로 공법 형사법은 총 9회분의 기출문제를 민사법은 1일 2회 3일 총 6회분(3회번시 2회번시 1회번시 2014 3회분 모의고사)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1순환을 진행하고 같은 문제를 다시 출력해서 같은 과정을 압축·반복 하였습니다.

10일차 아침 공법 3회, 2회 번시 오후 1회 2014-3차 모의고사 저녁 2014-2, 1차

11일차 아침 2013-3, 2차 오후 2013-1차 이후 공법 복습 순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수험 전략은 반복과 약점 보강이었습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자주 틀리는 부분은 기본서와 사례집 등을 통해 해당 챕터를 정독하고 시험지에 정리 하였습니다.

객관식 문제 풀이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의 객관식 반복 풀이방식은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 과목을 처음 풀 때는 복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같이 스터디 한 스터디 원들과 밥을 먹을 때 서로 물어보면서 시간단축을 했습니다.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을 다른 스터디원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식사시간에 설명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복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공법 객관식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9회분(번시3회분 + 모의고사 2년치 6회분)의 문제를 반복해서 5번 풀고 푼 문제지에 정리하며 복습을 진행하여 공법 객관식은 7회독 하였습니다. 시험문제가 항상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자주 나오는 부분은 반복되기 때문에 자주 틀리는 부분은 막판 정리용으로 시험지에 바로 정리하고 정리된 시험지를

변호사 시험기간 동안 반복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법 객관식에서 점수를 만회하여 객관식 점수가 기대 이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례형 기록형은 수업시간을 통해 최대한 많이 써보고, 선택형은 반복스터디를 통해 약점을 파악한 뒤 그 부분을 기본서를 통해 보완하는 방법으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IV. 맺음말

수험 생활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자신에 대한 믿음과 꾸준함으로 시험을 준비한다면 그 노력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30년이 달리질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오신 여러분은 모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오시기 전에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이신 분들입니다. 일단 입학하셨으면 그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 더욱 로스쿨제도와 변호사 시장에 대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소문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일이 아닙니다. 재학중에는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거듭 말씀드립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가족에게 보다 다정하지 못한 것도, 합격을 상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내가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변호사가 되지 못한 것, 오로지 그 뿐일 것입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변호사 시장의 장래에 대해서는 먼저 제도를 통해 꿈을 이룬 법학전문대학원 선배님들과 변호사님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에 충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수험방법 중에 한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하였으나 두서없는 글이 되어 오히려 수험에 혼선을 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저보다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취사선택을 잘 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하여 주신 고시계 편집국장님과 글이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준 콩콩이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